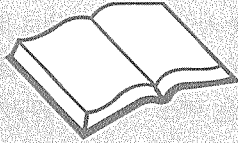


◎ 도서관이 알아야 할 출판과 책 이야기 ◎



야하고 뻔뻔하게



한미화*

그리고 보니 김형경의 책을 지금까지 읽은 적이 없다. 김형경은 어려보이는 얼굴과는 달리 경희대 78학번이니 우리 나이로 46살이다. 류시화, 이문재 시인과 동기니 문단이력이 만만치 않고, 그동안 화제작도 여럿 있었는데 그래도 못 본 채 했으니 이유가 있을 터이다.

김형경의 책을 거부한 무의식이 뭘까를 생각하다가 1995년에 작가가 발표한 <세월>이라는 소설을 떠올렸다. 그 책이 던져준 작가의 이미지 때문이 아니었을까. 소설에서 작가는 부모의 별거로 열두 살부터 하숙집을 전전해야 했던 사연, 대학 시절에 만난 선배에게 성폭행을 당한 뒤 그를 사랑하지 않으면서도 7년간 연인이자 동거인으로 지냈던 일 등을 솔직하게 털어놓아 화제가 됐다. 특히 하현규라는 이름으로 불린 선배는 이름만 대면 누구라도 알만한 시인 겸 소설가였는데, 이 모든 것이 내게는 꺼림하다고나 할까. 하여간 가까이 하기 싫은 느낌, 뭐 그런 무의식이 자리잡고

있었던 듯하다.

그런데 올해 들어 김형경이 펴낸 두 권의 책을 모두 한달음에 읽어치웠다. 봄에 출간된 장편 소설 『성에』도 그렇고, 겨울에 출간한 심리 에세이 『사람풍경』역시 하던 일을 작파하고 내리 읽었다. 누가 시키는 것은 아니지만 연말이면 한 해 동안 읽었던 책 중 어떤 책이 가슴 속에 남아있나 하고 스스로 적어보곤 하는데, 올해 읽은 책 중 김형경이 쓴 두 권의 책은 감명 깊었다는 상투적 표현을 넘어서 은혜로웠다고 솔직하게 이야기해야겠다 싶을 정도다. 책을 읽으며 스스로를 되돌아보고 또 되돌아봤다.



실시 소설 『성에』를 처음부터 읽을 생각이 있었던 것은 아니다. 더구나 책에 관한한 신뢰할 만한 선배가 『성에』를 읽고 있다길래 읽을 마음도 없으면서 예의상 어떠냐고 물었더니, 작가가 아직 멀었다고 단호하게 답하는 걸 듣고 그러면 그렇지 하고 말았다. 더구나 책의 분량이 장난이

* 출판칼럼니스트, bangku@dreamwiz.com

아니 것도 독서의 의욕을 꺾었다. 원고지 1700매짜리 소설을 언제 다 읽나 싶어서 제쳐 두었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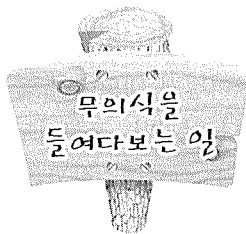
책을 읽지 않으려던 이유는 또 있다. 몇 군데 리뷰를 보니 소설의 상황설정이 작위적이고 어두웠다. 이점도 마음에 들지 않았다. 소설은 두 가지 이야기가 서로 엮이며 짜여져 있다. 하나는 12년 전 연희가 충동적으로 아주 갑작스럽게 세종과 여행을 떠났다가 폭설을 만나 산 속 외딴집에 갇혀 버리는 이야기다. 물론 연희와 세종은 각각 애인이 있는 상태다. 그런데다 연희가 부상으로 움직이기 어려운 상황에 처해버려 두 사람은 꼼짝없이 낯선 곳에 묶여버린다. 그런데 세상에 엮기적이라고도 그 낯선 곳에서 세 구의 시체를 차례로 발견한다.

또 다른 이야기의 축이 바로 그 세 구의 시체들 이야기다. 이렇게 쓰고 보니 마치 좀비들이라도 나오는 무서운 영화라도 보고 있는 듯한데, 당시 내 느낌이 그랬다. 시체가 되기 전 이들은 한 사람의 여자와 두 사람의 남자였다. 한 남자는 세계일주를 꿈꾸며 월남한 사람이었고, 다른 한 사내는 돈과 행복한 가정을 꿈꾸던 이였다. 그리고 여자는 이 두 남자에게 똑같은 사랑과 음식과 보살핌을 주었다. 두 남자는 그리하여 한 여자를 사랑했다. 똑같은 사랑을 나눴다고는 하지만 그것은 여자의 생각일 뿐, 여자가 임신을 하며 세 사람의 기묘한 균형 혹은 평화는 깨어지고 파국을 맞이한다. 그들이 세 구의 시체가 된 이유다.

짐작했겠지만 작가가 연희와 세종을 이렇듯 궁지에 몰아넣은 이유는 '서로 사랑하는 사람들이 세상 끝 어디에 둘만이 던져졌을 때 그

들에게 성은 어디까지 치달을 수 있겠느냐'를 살피기 위해서다. 반면 세 사람의 이야기는 그들을 곁에서 지켜본 참나무, 박새, 청설모, 바람의 입을 빌어 전해진다. 자연 속의 생물들이 인간을 바라보고 이야기한다는 설정이 참으로 묘하게도 인간이라는 존재의 한계를 잘 보여줘 흥미로웠다. 무한한 삶을 사는 대신 무미건조함을 견뎌야 하는 바람 입장에서 보자면 욕망이 들끓는 인간의 모습은 유한함이 가져다 주는 고통을 치유하려는 몸짓에 불과한 것이다.

1700매짜리 소설을 다 읽고나니 소설에 대해 시큰둥한 평을 한 선배의 말을 이해할 수 있었다. 사랑과 성에 대한 환상이 무엇인지 실체를 보여주겠노라는 듯 작품이 거칠고 힘이 들어가 있었다. 아마도 선배는 이 점이 문학을 대하는 작가의 옳지 않은 태도라고 생각했던 것 같다. 게다가 작가가 『성에』에 관해 청탁을 받고 쓴 글을 보니 “여성 독자들은 재미있게 읽고 공감하는 반응이 많은데 몇몇 남성 독자들은 어딘가 불편해하는 듯한 반응을 보인다. 한 후배는 사랑의 실체를 그토록 적나라하게 파헤치다니 누나가 앞으로 사랑을 하지 못할 거라는 생각이 들었다는 이야기를 전했다”고도 한다.



선배 역시 남자였던 터라, 그럼 그렇지 소녀와 여자와 엄마가 한 몸에 존재하는 여성을 어떻게 남자들이 이해할 것이냐, 아마 다음 생에 여자로 태어나기 전에는 어렵도 없을 것이라고 혼자 잘난 척

◎ 도서관이 알아야 할 출판과 책 이야기 ◎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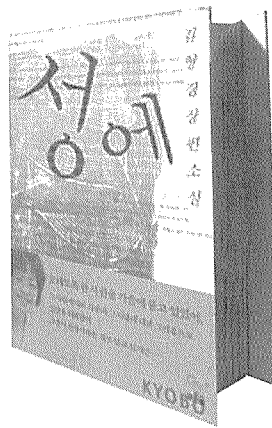
을 했다. 소설이 예사롭지 않았던 것은 표현의 수위 문제가 아니었다. 성과 사랑에 관한 직접 화법 때문에 소설은 단지 소설에서 끝나지 않고 내 인생으로 걸어 들어오는 것이었다.

그런데 흥미롭게도 작가는 이 소설을 쓰는 일이 자신에게 갖든 마음의 병을 치료하는 과정이었다고 했다. 전작이었던 『사랑을 선택하는 특별한 기준』이 동시대 여성이 사랑과 성에 대해 느끼는 불능의 감정을 들여다 본 소설이라면, 『성에』는 사랑의 본질을 들여다보기 위해 깊이 파고든 소설이다. 『사랑을 선택하는 기준』이 사랑과 성에 대한 수평적 사유라면, 『성에』는 수직적 사유인 셈이다. 에세이 『사람풍경』 역시 치료과정이며, 특히 무의식에 대한 사유라고 비유할 만하다.

작가는 마흔에 접어들 무렵 몸이 아팠는데 치료의 과정에서 그것이 마음의 병임을 알게 되었고, 정신분석 치료를 받았으며, 살던 집을 팔아 정리하고 오랫동안 외국여행을 떠났다. 『사람풍경』은 여행을 떠났던 마음과 생의 한 시기에 정신분석을 받았던 마음을 스스로 정리하는 책이다. 그래서 대상 선택, 분노, 우울, 불안, 공포, 의존, 중독, 질투, 시기심, 투사, 회피 같은 심리학적 증상들이 어떻게 내면에서 들끓고 있었는지를 하나하나 살핀다. 프로이트는 무의식이라 불렀고, 융은 콤플렉스라고 말했다는 것, 작가의 내면에 있었던 그것들을 작가가 꺼내어 그 연유를 살피는 동안 나 또한 나의 무의식, 나의 콤플렉스를 꺼내기 시

작했다. 사람은 무의식에 산다고 표현해야 할 만큼 어떤 트라우마의 시기에 고착되어 산다고 한다. 늘 자신이 초라하고 보잘 것 없고 무가치한 존재라는 느낌, 세상에 적합하지 않은 사람인 듯한 느낌, 춥고 어두운 골목에서 불켜진 이웃의 창을 바라보는 듯한 느낌, 이런 것들이 어떤 트라우마에 의해 무의식이 만들어낸 감정들이다.

인간의 삶에서 가장 중요한 감정이란 사랑과 분노다. 인간에게는 사랑의 원형, 즉 엄마와 나눴던 사랑이 있는데 그 시기에 경험했던 분노, 불안, 공포 등이 무의식에 자리 잡고 있다가 어느 시기 사랑을 하게 되면 사랑만이 아니라 분노나 시기심 같은 다른 감정들까지 줄줄이 따라 나오게 된다고 한다. 그래서 사실 인간이 사랑을 선택하는 특별한 기준이란 사랑을



선택하는 그만의 병리적 기준과 동의어다. 가만히 생각해 보면 누구나 자신이 좋아했거나 호감을 가졌던 이성의 이미지가 한결같은 것을 기억할 것이다. 어떤 이상형을 가지고 있다는 것이 나쁘지야 않지만 그 기준에 함몰되었을 때 문제는 발생한다. 작가의 경우 자신의 상흔이기도 한 아버지의 이미지가 기준이었는데, 최근 초등학교 시절 좋아하던 남자친구를 만나고 나서 그에게도 동일한 이미지가 있음을 발견하고는 소스라치게 놀랐다고 한다. 그 어린시절에 이미 작가에게 사랑의 기준(다시 말하면 병리적 기준)이 생겨나 있었던 것

이니, 우리에게 있어 부모나 유년시절이란 벗어날 수 없는 것인지도 모르겠다.

더 심각한 것은 분노라고 생각되는데, 사랑하는 대상을 잃거나 박탈되었을 때 분노는 생긴다. 위협한 것은 표출되지 않고 내면에 감춰둔 분노는 어떤 식으로든 나타나 우리를 괴롭힌다는 점이다. 작가에게는 몸이 아픈 것으로, 누군가에게는 소극적이거나 사람을 피해 혼자 있는 따위의 행동으로 들어나는데, 이런 몸과 마음의 병들이 모두 억압된 분노의 명령이다. 우울증 역시 분노가 억압되고 제대로 표출되지 못할 때 생기는 증상이다.

이밖에도 누군가에게 자신의 감정을 기대는 '투사'라거나, 자기존중, 나르시즘, 회피 등 우리를 중심이 아니라 삶의 밖에서 서성이게 만드는 감정들도 책을 통해 만나봤다. 인간이

란 존재가 정녕 이렇듯 쉽게 갈피마다 무의식이라는 커다란 빙하를 숨기고 있다. 아마도 김형경의 소설을 읽지 않았다고 주절주절 이유를 댄 것 역시 무의식의 발현이었을 터다. 일거리가 없으면 허전하고, 평생 큰 소리로 싸움을 해본 적이 없고, 친절하고 좋은 사람이란 소리를 듣기 위해 노력한다고 생각했던 것 역시 이면에는 거추장스런 무의식을 주렁주렁 거느리고 있는 거였다. 새로운 해에는 마음이 지레 알고 거부하는 책이나 사람이 있길랑 왜 그런지 살펴야겠다. 분노란 울음을 그치지 않고 보채는 아기와 같아서 보듬고 안아줘 스스로 해결하는 길밖에 없기 때문이다. 물론 그보다 더 중요한 것은 내 안의 무의식에 아랑곳하지 않고 '야하고 뻔뻔하게' 살아보는 일이다. 